

## בֵּית סֵפֶר (책의 집)

### 『사랑이 한 일』

이승우 씀, 문학동네



“인간은 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 능력도 없다.  
복을 가지고 있어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에게  
복을 달라고 빌 수 있을 뿐이다.  
복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과 수의 영역인 소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도 않고 상대적이지도 않다.  
소유의 유무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제한 없이 빌어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지 못하거나  
이 사람에게 많이 빌어주느라고  
저 사람에게는 조금밖에 빌어주지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복은 무한하다.”

##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사순절(四旬節)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① 1인 1봉사 자원자: 다음 주일 낮 예배 후, 본당
3. 배움주일 안내: 영화 '소풍' (2024년)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는(鑑賞) 시간입니다.
4. 향존직 공부 및 독서 모임: 3월부터 6월까지 넷째 주일 예배 후 모입니다.
5. 사순절 묵상, '일상의 기도' 훈련: 22일부터 4주간 오후 2시, 소예배실
6.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영혼을 허무에 빠뜨리지 않도록  
감사로 채워봅시다.

##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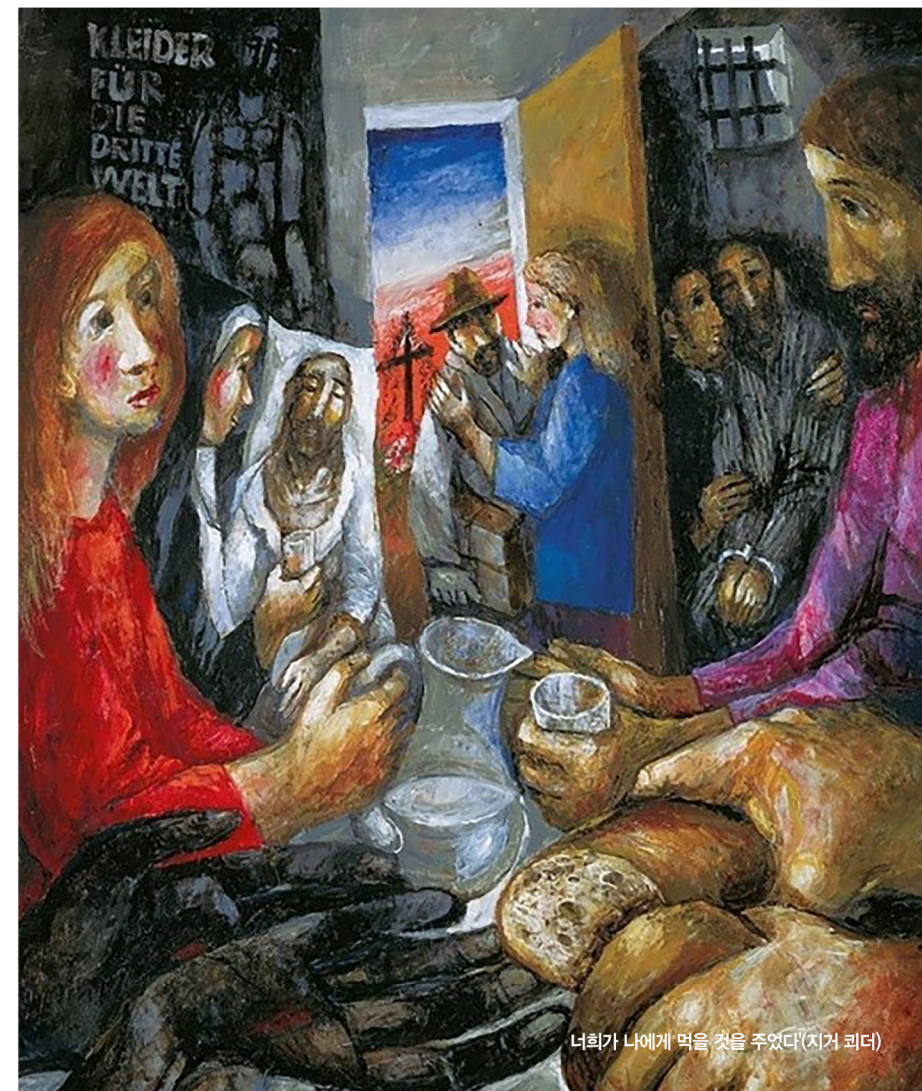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선 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 브 라 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협 061-691-7315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 산 교 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저 쿼드)

제51권 10호

2025년 3월 9일(사순절 첫 번째 주일)

###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주 일 예 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121:1-2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478장(3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91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486장(2절 후, 간주)
기 도	장세중 장로
* 성 경 봉 독	신명기 26:10-11(구약 300쪽)
찬 양	어서 돌아오오
말 씀 선 포	이것이 구원이로구나!
결단의 찬송과 기도	507장(2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4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김영준 장로

- \* 3월 안내위원 : 김양자, 정희숙, 조정순, 김염희
- \* 3월 헌금위원 : 김인수
- \* 3월 주방봉사 : 6, 9구역

생명의 말씀



그런 다음 가져온 것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에 베푸신 온갖 좋은 것으로 경축하십시오.  
여러분과 레위인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인  
한데 어우러져 잔치를 벌이십시오.  
(신명기 26.10-11/메시지성서)

배 움 주 일

오후 1시 30분	소예배실
영화로 나를 돌아보기(鑑賞)	소풍(2024년)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이기도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황명자 집사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9:57-62(신약 109쪽)
말씀선포와 기도	쟁기를 잡고 앞을 보라
축 도	이기도 목사
다음 주 기도 - 신대심 권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묵상 본문	13일(목)	누가복음 11:14-26
10일(월)	누가복음 10:1-24	14일(금)	누가복음 11:27-36
11일(화)	누가복음 10:25-42	15일(토)	누가복음 11:37-54
12일(수)	누가복음 11:1-13	16일(주일)	누가복음 12:1-12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그들은 입을 다물고

(누가복음 9.28-36)

[성서일과표/출애굽기 34.29-35, 시편 99.1-9, 고린도후서 3.12-18, 누가복음 9.28-36]

우리 교회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중심으로 예배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성서일과표는 3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해', '나해', '다해' 라고 부르지요. 2024-25시즌은 세 번째 해인 '다해' 이고, 올해를 대림절부터는 다시 새로운 3년 주기를 시작하는 '가해' 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해마다 공관복음서 가운데 하나를 집중적으로 읽으며 예배합니다. 시즌마다 정해진 복음서가 있다는 뜻이지요. '가해' 의 복음서는 마태복음이고, '나해' 는 마가 복음 그리고 '다해' 는 누가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예로부터 에스겔과 요한이 본 환상에 기초 하여 네 가지 동물을 상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마태복음은 예수를 참된 랍비인 인간으로 그렸고, 긴박한 전개가 특징인 마가복음은 포효하는 사자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비주의 공동체 요한 복음은 하늘의 제왕 독수리로 그리고 누가복음은 소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저마다 독창적인 방법으로 예수의 초상을 그림으로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려는 것이지요. 누가 복음의 상징 동물은 소라고 했지요? 고대 사회에서 소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보편성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밭을 가는 등 묵묵히 제 할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고기 혹은 희생제물로 자신의 삶을 다하지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그리는 예수의 초상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신성에 집중하는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주님의 '산상변모주일' 입니다. 예수께서 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이야기는 세 복음서가 모두 증언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문장이 담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변화산에서 거룩한 두려움(Numinose)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을, "그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도 그날 본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반면 마가와 마태복음 기자는 그들이 침묵한 이유를,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의 명령 때문이라고 설명하지요.

여기서 거룩한 경험에 대한 누가복음 기자의 통찰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본 자' 는 말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가 말하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실린 이야기들을 통해 더욱 뚜렷해집니다. 1장부터 볼까요? 제사장 사가라가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고, 그는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천사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자 아브라함이 그랬듯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요. 그러자 천사는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했답니다.

천사의 말은 문학적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가라가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처럼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장에서 외치는 이들을 포함하여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공허하고 거칠고 폭력적이기까지 하지요. 그들은 욕망의 화신을 신으로 부르며, 자신의 목적에 이용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이 없기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기자는 거룩한 두려움의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 부활 후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길에서 어떤 사람과 '예수 사건' 에 대해 토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계속 길을 가려는 그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 하룻밤 머물게 하였는데, 그가 식탁에서 빵을 떼어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인 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깨달음의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의 순간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가라나 제자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사라지셨다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지요. 그는 산 위에 머물자고 했지만 예수는 아래로 내려가자고,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는 소처럼 우직하게 십자가를 향해 자신이 가야 할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가 그랬듯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알고는 있을까요? 아니 그것에 관심은 있을까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이내 사라질 상대적인 것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야 할 길과 은혜의 깊이를 알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 영혼은 찬양으로 가득하겠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살롱.